

## 영어 의사수동(Pseudo-passive) 구문에서의 문법상호작용: 구문문법적 분석\*

이남근  
(조선대학교)

Lee, Nam-geun. 2009. On the Grammatical Interfaces in English Pseudo-Passive Constructions. *Linguistic Research* 26(3), 21-42. In addition to canonical passive construction, English allows the so-called pseudo-passive (or prepositional passive) in which the prepositional object of a transitive verb corresponds to the passive subject. This prepositional passive constructions display intriguing properties which can be hardly predicted from any syntactic or semantic constraints. This paper looks into how each grammatical component interacts in generating the English pseudo-passive construction. (Chosun University)

**Key Words** pseudo-passive, construction grammar, prepositional passive, grammatical interface, V-P construction, characterization, affectedness, ergative, unaccusative

### 1. 서론

영어의 전형적 수동태는 아래와 같이 타동형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그리고 타동사의 주어가 선택적 사격(oblique) 보충어 PP로 구현된다 (Bach 1980, Kim and Sells 2008).<sup>1)</sup>

- (1) a. Dissident republicans planted the bomb  
b. The bomb was planted by dissident republicans.

이러한 타동사와 관련된 전형적인 수동태구문과 달리 (2)와 같이 자동사가 수동화되는 의사수동태(pseudo-passive) 혹은 전치사수동(prepositional passive)도 허용한다 (Bolinger 1978).

- (2) a. For many years the seat belt was relied upon for safety in automobiles. (<= For many years we relied upon the seat belt for safety in automobiles.)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2008년도 기초연구지원과제의 지원을 받았다 (과제번호 KRF-2008-A00297).

1) 본 논문에서 인용된 예문들은 BNC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추출된 자료들이다.

- b. The net was slept under by one or more than one member of the household. (<= One or more than one member of the household slept under the net.)

(2a)와 (2b)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수동구문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실현된다. 이들 두 수동태 문장은 자신의 주어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전치사구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즉, (1a)에서 전치사구 *upon the seat belt*가 동사 *rely*의 보충어(complement)인 반면, (1b)의 경우 전치사구 *under the net*이 부가어(adjunct) 역할을 한다.

의사수동태구문은 이와 같이 전치사구의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전치사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Goh 2003, Huddleston and Pullum 2002, Kim 2008).

- (3) a. Philadelphia was spoken of in the House of Commons this afternoon. (<= They spoke of Philadelphia in the House of Commons this afternoon.)  
 b. Among his parishioners he was looked up to as a judge.  
 (<= They looked up to him as a judge.)  
 c. Every one's opinion was paid attention to.  
 (<= They paid attention to every one's opinion.)

위의 수동태 문장 모두 명시적인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동문의 주어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a)는 자동사(intransitive) 전치동사(prepositional verb) V-P로 구성되어 있고, (b)는 분사(participle)를 포함한 V-Part, (c)는 목적어와 더불어 전치사구를 V-NP-P로 구성된 타동구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사 혹은 전치사수동태 구문의 문법적 속성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법규칙 및 제약들이 이러한 구문들을 생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각각의 의사수동태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제약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2. 의사수동태 구문의 문법적 제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수동구문은 전치사구가 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하는 (4)와

같은 경우와 부가어(adjunct) 역할을 하는 (5)와 같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4) a. Everyone in need was looked after at the expense of the parish.  
(=< They looked after everyone in need.)
- b. The doctor was sent for. (<= They sent for the doctor.)
- (5) a. The tree was sat under. (<= They sat under the tree.)
- b. The mat was sat on by a cat. (<= The cat sat on the mat.)

그러나 문제는 전치사구가 보충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두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6) a. \*Dawn was occurred at by that event. (<= That event occurred at dawn.)
- b. \*The table was remained under by John. (<= John remained under the table).
- c. \*Hydrogen and oxygen are consisted of by water (<=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 d. \*A toadstool was turned into by John (<= John turned into a toadstool).

전치사동사(prepositional verb)로 불리는 occur at, remain under, consist of, turn into 등은 특정한 전치사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선택한다.<sup>2)</sup>

- (7) a. \*That event occurred of dawn.
- b. \*Water consists from hydrogen and oxygen.
- c. \*John turned with a toadstool.

비록 이들 전치사동사들이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취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승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충어 전치사구가 의사수동구문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부가어 PP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의사수동이 일어난다. 먼저 부가어 전치사구의 목적어가 수동화 된 경우를 살펴보자.<sup>3)</sup>

---

2) 전치사동사(prepositional verb)는 rely on과 같이 특정한 전치사 값을 가진 PP를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를 의미한다.

- (8) a. The bridge was skied under by the contestants.  
 b. This lake is not to be camped beside by anybody.

위 수동태와 상응하는 skied under the bridge나 camped beside the lake에서 전치사 구는 부가어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4)</sup> 이미 지정한 바와 부가어 PP는 많은 경우 의사수동구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 (9) a. \*Six o'clock was arrived at by John. (<= John arrived at six o'clock).  
 b. \*Dinner was quarrelled during by John and Sue. (<= John and Sue quarreled during dinner)  
 c. \*Mecca should be prayed toward by the faithful. (<=The faithful should pray toward Mecca.)

즉 보충어 PP나 부가어 PP들이 경우에 따라서 의사수동구문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사수동태 구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약들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전치사수동구문 형성에 어떠한 문법적 제약들이 작용하는가?

**의미적 단위(Semantic unity):** Bresnan (1982), Huddleston and Pullum (2002) 등이 지적한 것처럼 의사수동태가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와 전치사가 하나의 ‘의미적 단위(semantic unit)’를 이룬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사+전치사는 의미적으로 하나의 타동사(transitive)처럼 행동한다.

- (10) a. The fields look like they've been marched through by an army.  
 (=crossed)  
 b. Everything is being paid for by the company. (=purchased)  
 c. Your books needed to be gone over by an accountant.  
 (=examined)

이에 반해 아래와 같이 자동사와 전치사가 의미적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의사수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3) ICE-GB 말뭉치에서 추출한 자료로 S1은 구어(spoken) 자료를 의미한다.

4) 이들 전치사가 부가어라는 사실은 전치사 값이 skied next to the bridge 혹은 camped behind the lake처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뒷받침해 준다.

- (11) a. \*No reason was left for.  
 b. \*A river is lived over by the miller.  
 c. \*The operation was died after.

위의 경우에서처럼 left for나 live over가 의미적 단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단위로 나타낼 수 없는 의사수동태 구문을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말뭉치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12) a. Would anybody like to be smiled at?  
 b. People were afraid of being retaliated against.  
 c. Lawn parties, flower shows, and promenade concerts should all be dressed for.  
 d. The number of the cheque is 123456 and the branch it was cashed at is Old Market Square branch, Basingstoke, Hampshire."<ICE-GB:W1B-021 #37:3>

위의 경우 smiled at, retaliated against, dressed for, cashed at 등은 의미적 단위로 연결하기 어렵지만 의사수동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적 단위에서 차이가 없어도 의사수동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적 단위가 의사수동태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13) a. The bed was slept in.  
 b. \*The bed was slept under.

또한 의사수동이 허용되는 많은 경우 아래와 같이 smile at이나 dress for는 하나의 의미적 단위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 한다 (cf. Riddle and Sheintuch 1982):

- (14) a. What hurts the civilized man is smiled at by the savage.  
 b. Babbie is dressed for a specified event.

**비대격제약(Unaccusativity constraint):** 전치사 수동태의 가능성을 이러한 의미적 단위에 관한 제약보다 동사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전치사 수동이 일어나는 자동사들은 대상(theme)을 주어로 취하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가 아니라 행위자를 주어로 취하는

비능격(unergative) 동사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사수동구문의 자동사 sleep, smile, march, pay, go 등은 모두 행위자를 주어로 취하는 비능격자동사이다. 이러한 비능격동사가 의사수동화 되는 경우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 (15) a. This hall has been played in by some of the finest orchestras in Europe.  
 b. The bed was jumped on by the children.  
 c. This pool has been swum in by the last three world record holders.  
 d. The carpet has been rolled on by three generations of children.

위의 예문들은 비능격동사 play, jump, swim, roll 등이 의사수동화된 경우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비행위자인 대상(theme)을 주어로 취하는 appear, come, melt와 같은 비대격자 동사들은 전치사 수동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 (16) a. \*The horizon was appeared on by a pirate ship.  
 b. \*The border was come to.  
 c. \*This bowl was melted in (by the chocolate).

이와 같이 자동사의 주어가 어떠한 의미역을 수행하느냐는 일반적인 수동태 구문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일한 자동사들이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는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17) a. The closet was slid into by Ted.  
 b. \*The closet was slid into by the soap.  
 (18) a. The house was leaned against by the fullback.  
 b. \*The house was leaned against by the ladder.  
 (19) a. The desk was sat on by the gorilla.  
 b. \*The desk was sat on by the lamp.

Perlmutter and Postal (1984)가 지적한 것처럼 이들 예문에서 차이점은 주어의 의미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a)에서 sat은 의지(volitional)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능격 동사이지만, (19b)에서 sat은 이러한 의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격동사이고, 의사수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대격동사에 대한 제약은 의사수동구문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Kuno and Takami (2004)가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 (20) a. \*Boston was arrived at late at night.  
 b. During the conciliation proceedings, a settlement was arrived at with all the 21 employees.  
 c. The expected result was eventually arrived at night.

위의 예문 (20b)와 (20c)에서 동사 arrived가 행위자의 의지를 포함한 의지(volit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수동을 허용한다. 이는 곧 주동사의 어휘적 혹은 의미적 속성으로만 의사수동구문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성계약(Affected condition):** Bolinger (1977), Davison (1980), Goh (2001, 2003) 등이 지적한 것처럼 전치사 수동의 가능성을 주어의 상태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수동태 서술어가 지시하는 행동의 결과로 주어가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1) a. She was spoken to by police after an angry outburst at her hotel.  
 b. The window was beaten against by a stranger-looking man.  
 (22) a. \*The room was burst in by the bubble.  
 b. \*The hill was grown on by grass.

위의 정문과 비문의 차이점은 수동태의 주어들이 행위자가 행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이다. 즉 (21)의 She나 the window는 police나 a stranger-looking man이 행한 행동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22)의 the room이나 the hill이 bubble이나 grass의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즉 (21)과 (22)의 차이는 주어의 의미역에서 기인한다기보다, 주어가 행위자가 행한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혹은 포함(involve)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영향성 제약은 타동사 수동구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예문들을 살펴보자.

- (23) a. John weighed 150 pounds/\*150 pounds were weighed by John.  
 b. The doctor weighed my baby/My baby was weighed by the doctor.  
 (24) a. The student grew 10 inches in a year/\*10 inches were grown in a year by the student.

- b. The farmers grew fungus in the field/Fungus was grown in the field.

위 예문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동태가 허용되는 능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가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목적어가 이러한 행위자의 역할에 영향(affected)을 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23b)에서 목적어 my baby는 주어 the doctor가 행하는 weigh라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며, 수동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23a)에서 150 pounds는 John이 행하는 weigh라는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의 경우도 유사하다. (24a)에서 10 inches는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24b)의 fungus는 the farmers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수동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어가 선택적 사격보충어(oblique complement)로 표현되는 행위자에 의해서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수동태가 될 수 있다 (cf. Bolinger 1975, 1977, 1978, Goh 2001, 2003, Kim and Sells 2008).

수동태 주어가 가지는 의미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문장의 차이점에서 그 장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25) a. I was approached the other day by a man claiming he was visiting from Austin.  
b. \*I was approached by the train.

위 문장의 차이는 단지 주어 'I'의 의미역에 차이로 할 수 있다. (25a)와 (25b)의 차이점은 전자는 'I'가 낯선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기차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성 제약은 전치사 수동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26) a. \*San Francisco has been lived in by my brother.  
b. The house has been lived in by several famous personages.  
(27) a. \*Seoul was slept in by the businessman last night.  
b. This bed was surely slept in by a huge guy last night.

위의 (26a)의 경우 San Francisco는 my brother가 행한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어렵지만, the house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27a)의 경우도 Seoul이 businessman이 행한 취침의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어렵지만, the bed는 물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질화 조건(Characterization condition):** 영향성 조건이 전치사 수동구문 형성에 주요한 제약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완벽한 제약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타동사 수동태와 의사수동구문을 함께 살펴보자.

- (28) a. Four is equalled by two and two.  
 b. He is equalled in strength by no one.  
 (29) a. A mile to work was run by him.  
 b. A mile was first run in four minutes by Bannister.

위의 (28)의 경우 주어 four나 he가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9)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a mile이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뭉치 자료에서도 주어의 의미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30) National agreements were entered into with enthusiasm, but they had little relevance to the individual steel works."  
 "<ICE-GB:W2B-016 #60:1>

위 예문에서 주어 *national agreements*가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위의 경우 비능격동사를 포함한 술부가 주어의 특징적 속성(characteristic quality)을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cf. Davison 1980, Goh 2001, Huddleston and Pullum 2002, Kuno and Takami 2004).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31) a. \*This statue was stood beside by John.  
 b. No statue should be stood beside in this park.

위의 두 문장의 차이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this park에 관한 전형적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no statue라는 주어가 특정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술부 동사구는 이 공원에서 statue가 가지는 위치 즉 특징적 속성을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수동태 문장의 동사구가 주어의 특성을 기술하는 좀 더 명확한 경우를 살펴보자.

- (32) a. \*Seoul was walked around by his father.  
 b. Seoul can be walked around in a day.  
 (33) a. \*The hotel was stayed in by my sister.  
 b. The hotel can be stayed in by foreigners.

동일한 V-P 형태가 사용되었지만,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특질화 제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32)에서처럼 누군가가 서울을 산책하는 것이 서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없지만, 서울이 하루 만에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은 서울의 전형적 속성이 될 수 있다. 또한 (33)에서처럼 누이가 호텔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호텔의 속성을 기술할 수 없지만 외국인도 투숙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호텔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문법성 차이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 (34) a. \*John was travelled with by Mary.  
       b. John can be traveled with by anybody, since he is so likeable.  
 (35) a. \*The stone was stumbled over by John.  
       b. This stone will be stumbled over if it's not moved.

(34a)와 (34b)의 차이는 전자는 John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후자는 존의 여행에 관한 특징을 나타내준다. (35b)도 마찬가지로 (35a)와 달리 the stone의 특징적 속성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수동구문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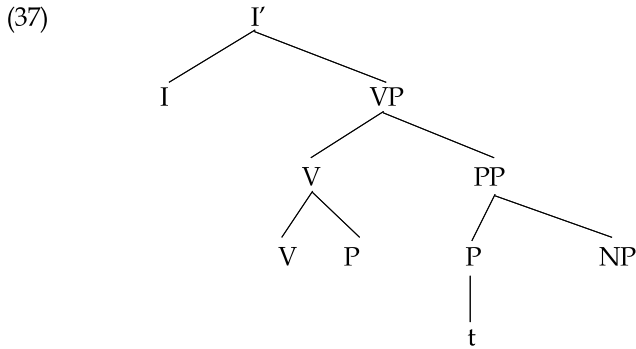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수동구문 형성은 어휘적 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법적 제약들이 상호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제약은 의사수동구문 생성에서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3. 변형생성문법적 분석

유사수동구문에 대한 전통적인 변형분석 방법은 Radford (1988) 등이 제시한 전치사합성(P-incorporation) 이동규칙을 포함한 재분석(reanalysis) 혹은 재구성(reconstruction)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아래 (a)와 같은 통사적 형태가 있는 경우 (b)와 같이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aker et al 1989, Baltin and Postal 1996, Hornstein and Weinberg 19981).

- (36) a. V-[<sub>PP</sub>P - NP]  
       b. [<sub>v</sub>V-P]-NP

이러한 재구성 이동은 결국 전치사 P가 이동하여 동사 V와 복합동사(complex verb)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흔적(trace)를 남겨두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PP를 지우는 제거(pruning) 과정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또한 (36)과 같은 이러한 이동분석은 이동규칙의 주요한 원리인 투영원리(Projection Principle)을 위반한다는 점이나 (Chomsky 1981), 어떠한 요소들이 제거(Prune)되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수동구문이 이러한 단순한 구조적 조건만 바라본다면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장의 차이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 (38) a. \*Boston was arrived at late at night.  
 b. The expected result was eventually arrived at night.

뿐만 아니라 통사적 구조에만 의존하는 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법적 제약을 가지는 문장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 4. 구문 문법적 분석

### 4.1 구문문법의 주요 특성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은 형식(form)과 기능(function)과의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구문(constructions)들이 언어의 기본적 단위를 이루고 있고, 특정 구문의 의미해석은 의미 합성성원리 등과 같은 일반적 원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는 고유의 의미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Goldberg 1995, Ginzburg and Sag 2000). 그러나 이러한 구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위계(multiple inheritance)와 같은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격자(lettice)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sup>5)</sup>

5) 보다 형식적인 구문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is a construction iff C is a form-meaning pair <F, S> such that some aspect of F or some aspect of S is not strictly predictable from C's component parts or from other previously established constructions. Kay (1995) 참조.

구문문법은 언어 본질에 관한 해답을 주요 구문을 다루는 핵심문법(core grammar) 연구에서 찾으려는 전통적 노력과는 달리 자신 고유의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가진 주변적 현상(peripheral phenomena)에 관한 연구와 병행했을 때 더 쉽게 찾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Goldberg (19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은 의미합성 과정에서 얻어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문적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9) a.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b. She baked him a cake.  
 c. Dan talked himself blue in the face.

위 결과구문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자동사이지만 본 동사의 행위로 인해 “X가 Y를 Z라는 결과 상태로 되게끔 초래하다(X causes Y to be in the result state Z by the main verb’s action)”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동사로 사용되는 이들 동사들이 결과구문에서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특정한 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러한 의미를 ‘구문’의 고유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6)</sup>

이처럼 문장의 의미가 순수한 합성성의 원리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어휘요소의 의미와 구문 고유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여러 현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WXDY** (*What is X doing Y*)은 구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통사적, 의미적, 형태적 제약을 명확히 보여 준다 (Jackendoff 1997, Kay and Fillmore 1997).

- (40) Madam: Waiter, what’s this fly doing in my soup?  
 Waiter: Madam, I believe that’s the backstroke.

위의 WXDY구문이 갖는 주요한 의미적 특성은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incongruity)’이다. 즉 파리가 부적절한 상황에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비적절성은 담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37a)와 달리 (37b)는 비적절성을 적절성으로 바꾸는 문맥 수정이 불가능하다 (Kay and Fillmore 1997 참조).

- (41) a. Look what your children are doing in my garden. How sweet of them!  
 b. What are your children doing playing in my garden? Isn’t that

6) 물론 이러한 동사들을 동음이의어(homonymy나 polysymy)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 어휘들의 순수 자동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와 결과구문에 사용되었을 경우와의 상관관계, 결과구문 동사들이 갖는 일반성 등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oldberg (1995) 참조.

cute? (불가능)

WXDY 구문이 주어진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형태, 통사론적 조건을 만족시켜야만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42) *do*가 반드시 있어야함:

What activity was she engaged in under the bed?

(43) *do*가 반드시 현재 진행형 이어야함:

\*What does this cratch do on the table?

(44) *doing*은 반드시 *be*동사의 보어 이어야함:

a. What did he keep doing in the tool shed?

b. What was he still doing in the tool shed?

(45) *else*와 같이 사용할 수 없음:

a. What are you doing eating cold pizza?

b. \*What else are you doing eating cold pizza?

(46) 부정 표현과 같이 사용할 수 없음:

a. \*What aren't my brushes doing soaking in water?

b. \*What are my brushes not doing soaking in water?

위와 같은 WXDY가 갖는 형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들은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문 고유의 제약들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구문적 제약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문 자체의 제약일 수도 있고 다른 구문으로부터 상속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Wh-cleft나, Free-relative clause, 그리고 that 관계절은 자신 고유의 명시적(stipulations) 제약을 가지고 있다 (Zwicky 1995 참조).

(47) Wh-cleft: wh-구는 wh-단어 하나만 사용될 수 있음7):

a. Where they came from was (from) Antarctica

b. \*Which bird we saw was the penguin.

c. \*From where they came was Antarctica.

(48) Free rel: *wh*가 인간(human)이 아니어야 함8):

a. \*Who I saw snubbed me.

7) Which bird did we see but the penguin!와 같은 Exclamatory Cleft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8) Whoever I saw snubbed me에서와 같이 Wh-ever 관계절에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b. What I saw bit me.

(49) that-주어 관계절은 반드시 무생물이어야 함:

- a. the people who admired me
- b. \*the people that admire me
- c. the people that I admire

이처럼 구문에 관한 특정 제약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구문의 제약으로부터 유추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else*는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관계절에는 사용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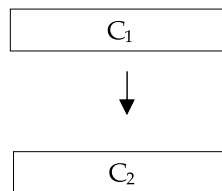
(50) a. Who else did you notice?

b. \*the people who else we noticed

(*else*는 비한정(indefinite) 명사와만 결합)

관계절에서 *else*가 사용될 수 없다는 제약은 *else*는 첫째, *someone else*, *\*those else*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한정(indefinite) 대명사와만 결합하며 둘째는 의문문의 대명사는 비한정(indefinite)인 반면 관계절의 대명사는 한정적(definite)이어야 한다는 제약들로부터 기인한다.

실제적으로 구문의 많은 속성들은 자신 고유의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구문의 제약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각각의 구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네트워크는 아래처럼 상속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위 구문의 속성들이 하위 구문으로 상속되어 진다 (Goldberg 1995 참조).



(where ↓ means the inheritance link from C1 to C2)

[그림 1]

이러한 상속 위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중 상속(multiple inheritance)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 구문의 속성이 여러 구문으로부터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과 동사-분사 구문(verb-particle construction)의 속성이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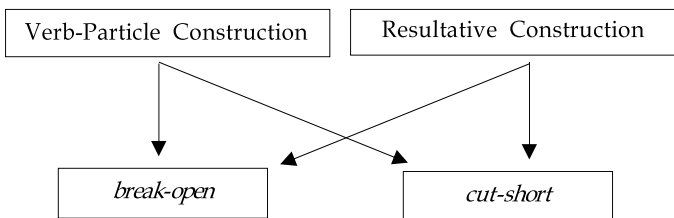
된 경우를 살펴보자. 결과구문의 특징 중 하나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목적어와 이를 서술하는 결과구(resultative phrase)의 위치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 (51) a. He talked himself horse.  
b. \*He talked horse himself.
- (52) a. He hammered the metal flat.  
b. \*He hammered flat the metal.

그러나 특정 결과구문에서는 동사-분사구문과 유사하게 목적어와 결과구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 (53) a. He cut the speech short.  
b. He cut short the speech.
- (54) a. Break the cask open.  
b. Break open the cask.

위 예문들이 갖는 속성은 아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사-분사 구문과 결과 구문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구문적 관련성은 도식화하면, 아래 다층 위계 상속 구조(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로 나타낼 수 있다 (Jackendoff 2002).



[그림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 및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 있는 구문들은 다층상속위계 내에서 상속 고리(inheritance link)로 연결되어 있다. 상위구문의 제약이나 속성이 하위구문으로 상속되는 상속위계 구조는 구문간의 공통된 속성을 포착, 일반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문이 갖는 고유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Kim and Sag 2002).

#### 4.2 의사수동구문의 구문 문법적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수동구문은 전형적인 수동태 구문의 속성을 상속받으면서, 그 자체의 구문적 속성도 갖고 있다. 전형적 타동사수동구문과 의사수동구문의 공통된 속성으로는 두 구문 모두 be + V-en 형태를 취하며, 행위자(agent)는 선택적 보충어인 PP[by]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Tseng 2006, 2007).

- (55) a. The book was written by the author.  
b. The book is frequently referred to.

즉 전형적인 타동사수동태구문이나 의사수동구문 모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가 영향성 제약(affected condition)을 준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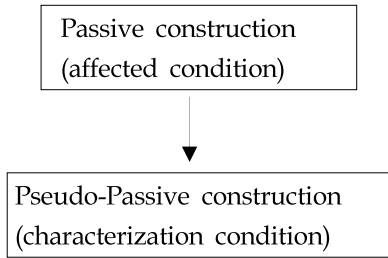
- (56) a. The beans were grown by the gardner/\*Six inches were grown by the boy.  
b. I was approached by the stranger/\*I was approached by the train.

그러나 의사수동구문은 타동사수동구문과 달리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적 제약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수동구문은 자신 고유의 속성으로 주어가 특질화조건(characterization)을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주요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7) a. The ball was hit by my brother.  
b. The river was built by my son.  
(58) a. This river has been swum in by the world record holders.  
b. \*This river was swum in by my brother.

전형적인 수동태의 경우 (57)은 the ball의 특징적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다. 그러나 (58a)와 (58b)의 대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어의 특성적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러한 구문적 속성의 상속조건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위 상속위계가 보여주는 것은 의사수동구문이 타동수동구문의 하위구문이며, 타동수동구문이 갖는 구문적 제약을 상속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의사수동구문은 타동수동구문과 달리 PP 보충어를 취하거나 혹은 PP 부가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모두 자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59) a. The package was stepped on by a camel.  
b. The bed was jumped on by the children.

즉 타동수동태는 타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의사수동구문은 전치사구를 의존소(dependent)로 결합하는 자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sup>9)</sup>

형식적 제약에서 의사수동태 구문은 또 다른 통사적 제약도 포함하고 있다. 의사수동태구문은 능동태구문과 달리 전치사와 밀접한 통사적 긴밀성을 가지고 있다 (Goh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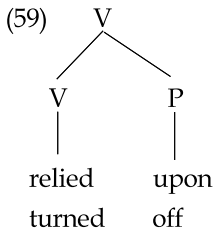
- (60) a. Pavarotti relied on Loren and Bond \_\_\_ on Hepburn.  
b. \*Pavarotti relied on Loren and Bond \_\_\_ Hepburn.  
(61) a. Loren was relied on by Pavarotti and Hepburn \_\_ by Bond.  
b. \*Loren was relied on by Pavarotti and Hepburn \_\_ on by Bond.

(60)의 경우 능동 V-P 연결체에서 동사는 공백(gapping) 현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치사와 함께 공백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61)의 의사수동구문에서는 V-P가 함께 공백화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는 의사수동구문에서 V-P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 특히 어휘적 복합술어(lexical compound)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사와 뒤따르는 전치사와의 밀접한 통사적 긴밀성은 동사와 분사(particle) 사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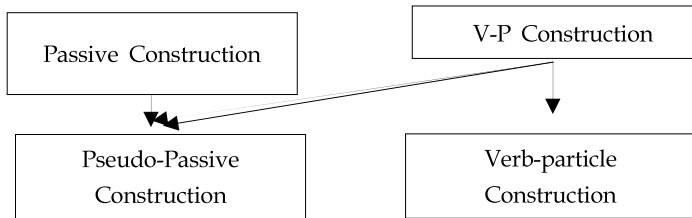
9) 여기서 의존소(dependent)는 부가어 및 보충어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Ginzburg and Sag (2000) 참조.

- (66) a. John quickly turned off the light.  
 b. \*John turned quickly off the light.  
 c. \*John turned off quickly the light.

위의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분사(particle)은 통사적 긴밀성을 보여 준다. 이는 의사수동구문과 분사구문에서 V-P가 아래와 같이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루는 구문임을 의미한다 (Abeille and Godard 2000, Farell 2005)



이러한 기능적, 통사적 제약들은 의사수동구문에 상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상속 개념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위의 상속개념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의사수동구문(pseudo-passive construction)은 전형적인 수동태구문의 제약뿐만 아니라 V-P 구문의 통사적 제약을 상속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복잡한 자질을 상속받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구문문법적 분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준다. 특히 자신만이 갖는 특징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시간적 제약과의 연관성도 예측할 수 있다.<sup>10)</sup>

10) 영어의 중간태 동사도 이러한 특징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수동구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 a. The car handles easily.

- (60) a. \*The river was swum in by my brother.  
 b. This river should not be swum in -- you might be drowned.
- (61) a. \*The stairs were run up by Jane.  
 b. The stairs have been run up so much that the carpet is threadbare.

위의 (60a)나 (61a)의 단순 과거시제는 주어의 특징을 나타내기보다는 한 상황을 기술하지만, 현재 상황의 조건이나 상황을 기술하는 (60b)나 (61b)는 주어의 특징성을 기술하기 때문에 의사수동이 가능하다. 물론 과거시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동작주의 행위로 인해 아래와 같이 주어가 특징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 (62) a. \*The pen was written with by John.  
 b. The pen was written with by Charles Dickens in the 19th century.
- (63) a. \*The US has been lived in by Ann.  
 b. The US has been lived in by generations of immigrants.

위 예문들은 비록 모두 과거시제이지만 행위자의 행동이 주어를 특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속성 역시 주어의 특징화를 규정할 수 있다.

- (64) a. This fountain has always been written with.  
 b. \*This fountain has always been written without.

즉 fountain의 기본 속성은 도구로 함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64a)의 경우만 의사수동구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문분석은 V-P가 의사수동구문에서만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는 점은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65) a. The buyers looked closely into the samples.  
 b. \*The samples were looked closely into by the buyers.

능동형의 경우 looked into는 하나의 통사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사이에 끼어드는

---

b. \*The car handled easily yesterday.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V-P 구문의 특징을 상속하고 있는 의사수동태는 look-into가 하나의 V를 이루기 때문에 부사가 그 사이에 올 수 없다. 이러한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을 구문문법적 분석은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 5. 결론

영어의 의사수동구문은 통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법정보가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의사수동구문은 전형적인 타동수동구문의 많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자신의 구문적 속성인 V-P 구문, 비능격제약, 영향성 조건 특질화 조건 등 다양한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문법제약들이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수동구문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문법모델은 형식과 형태가 쌍으로 존재하는 구문문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구문은 자신의 상위구문의 제약을 상속하며, 동신이 자신 고유의 문법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문상속의 개념은 의사수동구문이 갖는 보다 복잡한 문법모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 References

- Abeille, Anne and Daniele Godard. 2000. French Word Order and Lexical Weight. In R. Borsley (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Syntactic Categories*, pp.325-360. New York: Academic Press.
- Bach, Emonds. 1980. In defense of passive. *Linguistics and Philosophy* 3, pp.297-341.
- Baker, Mark, Kyle Johnson, and Ian Roberts. 1989. Passive arguments raised. *Linguistic Inquiry* 20, pp.219-252.
- Baltin, Mark and Paul Postal. 1996. More on reanalysis hypotheses. *Linguistic Inquiry* 27, pp.127-145.
- Bolinger, Dwight. 1975. On the passive in English. *LACUS* 1, pp.57-80.
- Bolinger, Dwight. 1977. Transitivity and spatiality: The passive of prepositional verbs. In A. Makkai, V. B. Makkai, and L. Heilmann (eds.), *Linguistics at the Crossroads*, pp.57-78. Jupiter Press, Lake Bluff, IL.
- Bolinger, Dwight. 1978. Passive and transitivity again. *Forum Linguisticum* 3, pp.25-28.
- Bresnan, Joan. 1982. The passive in lexical theory. In J.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pp.3-86.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Davison, Alice. 1980. Peculiar passives. *Language* 56, pp.42-66.
- Farell, Patrick. 2005. English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Constituency and Order. *Language* 81. pp.96-137.
- Ginzburg, Jonathan and Ivan A. Sag. 2000. *Interrogative Investigations: the form, meaning, and use of English Interrogative construction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Goh, Gwang-Yoon. 2001. On passivization possibilities of the prepositional object in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pp.211-225.
- Goh, Gwang-Yoon. 2003. A Lexicalist Analysis of the Prepositional Passive in English.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s*, 19(2).
- Goldberg, Adel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rnstein, Nbert and Annie Weinberg. 1981. Case theory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12, pp.55-91.
- Huddleston, Robert and Geoffrey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Jackendoff, Ray. 1997. Twistin' the night away. *Language* 73, pp.534-559.
- Jackendoff, Ray. 2002. English particle construction, the lexicon, and the autonomy of syntax. In N. Dehe, RJackendoff, A. McIntyre, & S. Urban (eds.), *Verb-Particle Explorations: Interface Explorations 1*.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pp.67-94.
- Kay, Paul and Charles Fillmore. 1997.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Linguistic Generalizations: *the What's X doing Y? Construction*. Ms. UC Berkeley.
- Kim, Jong-Bok, and Ivan A. Sag. 2002. Negation without Head Movemen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0(2), pp.339-412.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8.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 Kim, Jong-Bok. 2008. Three Types of Prepositional Passive. Ene.
- Kuno, Susumu. and Ken-ichi Takami. 2004. *Functional constraints in grammar*. John Benjamins.
- Lee, Nam-geun. 2005. A Constraint-based Analysis on English and Korean Passive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pp.227-247.
- Perlmutter, David and Paul Postal. 1984. The I-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D. Perlmutter and C. Rosen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2*. Univ. of Chicago Press.
- Radford, Arnold.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ddle, Elizabeth and Gloria Sheintuch. 1982. A functional analysis of pseudo-passiv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pp.527-563.
- Sag, Ivan, Tom Wasow, and Emily Bender. 2002. *Syntactic Theory: A Formal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Tseng, Jesse. 2006. English prepositional passives in HPSG. In Gerhard Jager, Paola Monachesi, Gerald Penn and Shuly Wintner (eds.), *FG-2006: Proceedings of the 11th conference on Formal Grammar*, pp.147--159, Malaga.

- Tseng, Jesse. 2007. English prepositional passive constructions. In *Proceedings of the HPSG07*, pp.271-287. CSLI Publications.
- Zwicky, Arnold. 1987. Constructions in monostratal syntax. *CLS* 14.
- Zwicky, Arnold. 1995. Dealing out Meaning: Fundamentals of Syntactic Constructions. *BLS* 20, pp.611-625.

**이남근**

광주광역시 서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영어교육학과  
501-759  
E-mail: nglee@chosun.ac.kr

접수일자: 2009. 11. 08

수정일자: 2009. 12. 09

게재일자: 2009. 12. 19